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

권석민 교수

춘천. 누구나 추억 하나쯤은 갖고 있을 법한 도시이다. 취재차 가는 길이지만,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북한강을 따라 경춘기도를 달리는 기분은 그런 추억 하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길처럼 설렌다.

그런 추억의 도시를 찾아 만난 천문학자는 강원대학교 권석민 교수. 권 교수의 연구실에 들어서니 책장이고, 책상이고 전공 서적들로 가득하다.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정신이 없습니다. 먼 길 오셨는데, 들려드릴만한 얘기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천문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가장 오래 전 일은 대덕에 있는 전파망원경 만들 때입니다. 학생 시절이었는데, 전파망원경이 설치되는 장소의 정확한 경위도를 측량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이라면 GPS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이야 일도 아니죠. 그러나 당시에는 한 달 가까이 판잣집 같은 숙소에서 전파천문대와 국립지리원 분들과 생활하면서 천문 측량으로 위치를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라 걱정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측량은 정확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 전파망원경 사진을 보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이후에 권석민 교수는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석사 논문을 쓰게 된다. 이때부터 춘천과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강원대학교로 오신 게 몇 년도죠?”
“1991년 3월입니다. 사실 춘천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곳을 생각해두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무렵 군대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몇 가지 길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교수요원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졸업 후에 군복무 대신 전임강사로 일정 기간 근무를 하는 것이었죠. 당시 지방 국립대학교에 교수 재원이 부족하던 터라 그런 제도가 생긴 것이죠. 그렇게 학교에 남아있다 보니 지금까지 왔네요.”

춘천에서의 생활이 시작되다

“천문학을 전공하셨는데, 길이 좀 틀어진 것 아닌가요?”
“천문학을 한다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원적인 꿈이셨군요?”
“어렸을 때부터 별을 좋아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중학교 때 과학실 청소를 하다가 먼지가 뿌얇게 쌓인 천체망원경을 발견한 일일 겁니다.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친구들과 운동장으로 끌고 나와 조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지길 기다렸죠. 처음 본 게 달입니다. 정말 충격이었어요. 달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색종이를 오려 붙인 것처럼 평평하다고 생각했는데, 망원경으로 보니 공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 걸 보면서 어떻게 저런 커다란 공이 하늘에 떠있을 수 있나 무척 신기해했어요.”
“천문학을 그렇게 좋아하셨다면, 현재 사범대 교수라는 자리가 잘 맞지 않는다는 건 아닌가요?”

“사범대 와서 처음 2, 3년 동안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사범대 교수분들 대부분은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오셨기 때문에 교육적인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저처럼 자연과학이나 인문과학을 했던 사람들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순수하게 천문학을 할 것인가, 아니면 교육 쪽을 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선배 교수님들께 상담도 하고 해서 내린 결론은 바탕이 천문학자이니 천문 연구를 계속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범대에서 천문 연구를 하는 건 쉽지 않았다. 같은 길을 가는 동료가 있어야 겨러도 되고 경쟁도 되는데, 그러한 것이 늘 부족했다.

“그래도 천문학적인 마인드를 썩히지 않으려면 뭔가 연구의 줄을 놓치지 않고 부여잡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회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저희 학교에서 많은 학회를 개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중점을 두고 하시는 연구 주제는 무엇인가요?”

“황도광입니다. 황도광이라는 게 태양계 공간을 떠도는 미세한 먼지입자들이 햇빛을 산란시켜 빛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매우 희미하기 때문에 관측이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지상 관측도 했지만 최근에는 거의 적외선우주망원경을 사용해 관측합니다. 재밌는 건 제가 학위 논문에 사용한 자료가 60년대 말 지상 관측 자료인데, 지상 관측 자료 중 아직까지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다는 겁니다. 망원경도 커지고, 검출 장비는 나날이 발전하는데, 광공해가 심해져 좋은 관측지가 없기 때문인 거죠.”

“황도광을 분석하는 것이 천문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태양계 생성 기원을 알기 위해서는 기원 물질을 알아야 하는데, 이 물질들이 어디 있냐 하면 소행성이나 혜성에 있습니다. 황도광을 만들어내는 입자들이 바로 이들 천체로부터 떨어져 나옵니다. 즉 황도광을 관측함으로써 태양계 기원 물질과 그 분포를 알 수 있고, 이로부터 태양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는 더 나아가서 외계 행성계 연구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도광과 태양계 기원

권석민 교수는 주중 기러기 아빠다. 주중에 홀로 춘천에서 생활하고, 주말에나 서울 집에 간다고 한다.

“의암댐 근처에 조그만 집이 있어요. 처음 춘천에 들어오면서 의암댐 근처를 지나는데, 집짓고 살면 좋을 것 같은 곳이 있더군요. 한 동안 잊고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아시는 분이 좋은 땅이 있으니 관심 있으면 와서 보라고 하더군요. 갔더니 바로 ‘그 곳’이었습니다.”

“혼자 계시니 외롭거나 힘들지는 않으세요?”

“아파트는 관리비 내면 다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모든 것 다 제 손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도 시내 있다가 집에 가면 공기가 다릅니다. 밤에는 은하수도 보일 만큼 하늘이 좋고요. 별 볼 환경은 좋은데 아직 제 망원경이 없어요. 이런 저를 보고 아내는 가짜 천문학자라고 놀리곤 합니다.”

“유부남이 혼자 생활하면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할 수 없었던 취미생활을 간접 받지 않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취미생활이 없다면 혼자 밤에 있기도 힘들 겁니다. 짐 생각도 많이 날 거고요.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를 많이 즐깁니다.”

그의 취미 생활 중 하나는 커피. 그런데 이게 단순히 취미정도가 아니다. 일본에서 교수 생활을 할 때는 현지 잡지에 커피 관련 글을 기고하기도 했고, 개업한 커피숍에서 커피 맛을 평가해달라는 의뢰를 받기도 했다. 자칭 커피 마니아이다.

커피 마니아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커피 원두를 직접 볶고, 갈고, 내려 마십니다.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합니다. 땀질해서 오디오 만드는 취미도 있죠. 시골이다 보니 아파트처럼 아래윗집 신경 쓰지 않고 제가 듣고 싶은 만큼 볼륨을 올려 들을 수 있습니다. 진한 커피 한잔과 공간을 가득 채우는 음악. 외지에 혼자 떨어져 외롭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즐겁기도 합니다.”

교사 육성이 목적인 사범대지만 모든 졸업생이 교사가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권석민 교수는 이 부분이 늘 고민이라고 한다.

“교사가 될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학원 강사를 하거나 무작정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교수로서 안타깝고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최근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이를 위한 재원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과학관 같은 전시시설의 해설가도 교육법을 배운 사범대생이 좀 더 잘 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교육 과정이나 행정이 이러한 분야로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할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교수직과 함께 부학장직도 맡고 있는 권 교수는 요즘 천문과 관련된 연구보다 학교정책과제연구에 더 바쁘다고 한다. 지금 진행 중인 일이 마무리되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다는 권석민 교수. 천생 천문학자일 수밖에 없어 보이는 그에게서 진한 커피

내음과 짙은 천문학자의 체취가 배어 나오는 듯하다.

